

광주과기원·전대병원 청렴도 '최하위'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7점대...공공기관 비해 낮은 수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병원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이 올해 국공립대 청렴도 조사 결과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전남대병원도 청렴도 5등급을 받아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국·공립대학(4년제 35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16개, 국립·지방의료원 30개)을 측정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국·공립대학 1만1820명, 공공의료기관 9622명 등을 대상으로 10~11월 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대비 0.15점이 오른 7.69점,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0.1점이 하락한 7.41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8.19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올해 국공립대 청렴도 조사 결과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아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광주·울산과학기술원은 3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 1등급을 받은 대학은 없었으며 2등급에는 △강원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청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육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지난해(7.68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부패경험률은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이 6.4%로 가장 높았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국·공립대학은 14개 기관으로 총 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 18건, 금품수수 11건, 향응수수 1건 등 순이다. 부패사건 징계자 중 대다수는 교수(29건)로 나타났다.

16개 국립대학병원 청렴도 조사 결과 전남대병원이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강릉원주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은 1등급을 기록했다.

국립·지방의료원 30개 기관 가운데 5등급은 없었고 1등급은 삼척의료원이 유일했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7.41점으로 전년 대비 0.10점 하락했다. 가장 높은 영역은 계약(8.13점) 부분이었지만 지난해보다 0.12점 하락했다. 환자진료(7.55점, -0.01점), 내부업무(7.12점, -0.22점), 조직문화(7.02점, -0.19점), 부패방지제도(6.24점, -0.05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사 특혜 영역이 포함된 내부업무 영역의 하락이 컸다. 유형별로는 국립·지방의료원이 전년 대비 0.15점 하락한 7.62점으로, 지난해보다 0.01점 하락한 국립대학병원(7.02점)보다 청렴수준이 높았다.

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이 모든 영역에서 부패인식

이 하락한 가운데,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등 계약 영역 부패경험률은 전체 11.8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0.05%p)했다. 국립대학병원이 지난해 대비 2.48%p 하락한 14.84%로 같은 기간 1.20%p 오른 국립·지방의료원(9.54%)에 비해 높았다.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동경비가 3.40%로 가장 많았고 편의(3.13%), 향응(2.81%), 금품(2.52%)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총 12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되었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4건, 인사특혜 제공 2건, 공금유용·횡령 2건 등의 순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직자의 내부업무 인사 관련 특혜 제공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0.24점이거나 하락한 6.91점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비 횡령·부정수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같이 일상 속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 기관들의 청렴도가 여전히 6~7점 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국·공립대학, 국민의 실생활과 가까이 있는 공공의료기관 등이 공정과 청렴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청렴도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구,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개최

광주 동구가 오는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동구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2019년 지역문화 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대금연주단 '여울림'과 함께 흥겨운 국악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대금연주단 여울림(대표 채광자)은 지난 2008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일본·러시아 등 국내외를 넘나드는 150여 회 공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대금연주를 알리고 전통문화를 전승하는데 힘써왔다.

서구,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

광주 서구가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로 가입돼 지난 19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령친화도시란 노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각종 건강, 의료, 주거, 참여의 기회 제공 등 노인복지의 꾸준한 실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광주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1,0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고령친화도 조사를 추진했으며,

남구, 재난분야 두각 각종 평가서 빛났다

광주 남구가 재난안전 분야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명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중앙정부 및 광주시 주관 평가에서 연달아 최우수 및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지원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항목은 재난관리 지원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를 비롯해 지원 동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노력, 재난관리 지원 비축 창고 관리, 재난과 지원 가능현황에 대한 실적, 공동 활용시스템 지원 현황화, 행정안전부 주관 각종 교육 참석 실적 등이 반영됐다.

북구,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평가 광주 유일 장관상

2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우수자치단체를 발굴해 포상했으며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적성 ▲노사 상생강화 사업 우수성 ▲노동환경 개선 노력 ▲노사민정 사업 홍보 등 4개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산구 모아모이행복센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23일 광주 광산구 여성과 공공 돌봄 커뮤니티 공간 모아모이행복센터가 주민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엄마와 함께 영양만점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7살 자녀와 행사에 참석한 하남동 김정남 주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를 만들며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집 가까운 곳에 아이와 여성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 자주 이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6일 하남동 광산구치매안심센터 2층에 문을 연 모아모이행복센터는, 여성 역량 강화와 공공 돌봄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육아 공동정보 나눔터 '카페 품평', 실내놀이터 '점프점프', 프로그램실, 수유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광주시민 86% 찬성'...황룡강 장륙습지 보호구역 지정 '속도'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륙습지 호남대 하류쪽 전경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이 광산구 황룡강 장륙습지 보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1년2개월에 걸친 국

가습지보호지역 지정여부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민

대상 황룡강 장륙습지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85.9%가 찬성, 반대는 14.2%로 나타났다.

황룡강 장륙습지는 호남대 앞부터 영산강 합류부까지 약 8km 구간으로 그동안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체육시설·주차장 설치 등 개발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광주시는 2017년 환경부 국립습지센터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정밀조사를

실시, 도심지 습지로는 보기 드물게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여론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광산구로부터 최종적인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받아 환경부에 제출해 지정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장륙습지는 국내에서 첫 번째 도심 속에 위치한 국가습지보호지역이 된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훼손된 지역의 복원도 이뤄진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년 단 911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 명 근(851118-1637813)
최 후 주 소 : 전남 고흥군 남양면 승정안길 3
등록기준지 : 전남 고흥군 남양면 승정안길 31

위 망 이명근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2월 24일

공 고 인 : 박부미, 이재은, 이승준, 이도영.
주 소 : 전남 고흥군 남양면 승정안길 3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12월 19일
공고기간 : 2019. 12. 24 ~ 2020. 2. 24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인이 인범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세력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간 서로 생명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신제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전라남도노사갈등조정지원사업위원회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